

길쭉 그림책 **보통**

“안녕? 나는 보통이야.” 신나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는 주인공 네모의 이름은 ‘보통’이에요. 어른들은 ‘보통 (normal)’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해요. 그런데요, 모든 보통이 똑같은 모양이어야만 할까요? 똑같은 색깔이어야만 할까요? 다르면 안 되는 걸까요?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그림책《보통》을 만나 보세요!

글·그림 민아원 | 기린미디어 | 주제어 다양성, 함께 살아가기 | 대상 6세 이상



주인공 '보통'이처럼 나를 소개해요.



“안녕,
나는 보통이야.
너는 누구니?”

“나는 _____ 야.”

“나는 _____ 살이야.”

“나는 _____ 잘해.”

“나는 _____ 좋아해.”

“나는 _____ 싫어해.”

“나는 _____ 맛있어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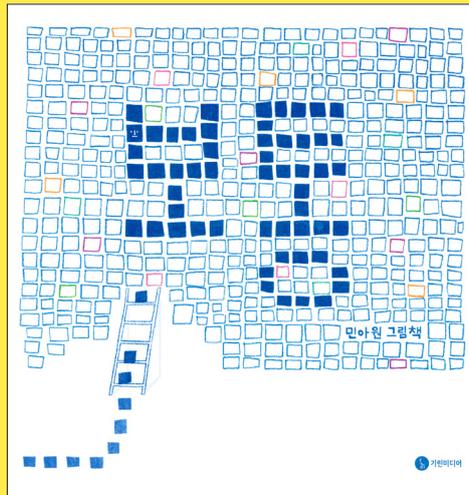
나와 친구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아요.

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/ 못하고 싫어하는 것

친구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/ 못하고 싫어하는 것



나만의 개성 있는 《보통》표지 만들기



어떤 표지를
그려 볼까?



빈 네모 속에 울고, 웃고, 찡그리는 '보통'이의 표정을 그려도 좋고, 색칠해도 좋아요.

자유롭게
그려봐!

